

계층분석적 의사결정에 의한 건강도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실증연구

박명배, 남은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1. 연구목적

1980년대 후반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건강도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대 초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도시 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자치단체의 10%이상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 단체는 건강도시사업을 개발 추진시 과학적이지 못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건강도시 사업개발을 위해 AHP기법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실증 분석을 함에 있다.

2.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 대상은 건강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K 중소도시이고, 설문조사는 2008년 2월중에 이루어 졌다. 본 연구는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하여 건강도시를 시행하게 될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AHP 기법은 1980년 미국의 토머스 서티(Thomas Saaty)교수의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논문에서 처음 개발된, 다수 대안에 대한 다면적 평가기준을 통한 의사결정지원 방법의 하나로,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를 위한 판단자료가 수집된다. 이때, 고유치(eigen-value)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의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하게 된다.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순위를 얻기 위하여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화하는 과정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도시사업을 위해,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건강도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다. 건강도시 사업의 개발은 건강을 위한 개인적 접근과 사회·환경적 접근의 2가지 대분류로 나누어 개발되었다. 대분류 1인 개인적 접근 항목은 생활습관, 질병예방 및 재활의 2가지 영역(Field)이고, 대분류 2는 사회환경적 접근 항목으로서 생활터접근, 인프라, 환경, 평가 및 반영의 4가지 영역이다. 따라서, 중분류 항목은 6개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에 대한 각 영역별 우선순위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영역별 가중치에 따른 하위 33개의 세부과제들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다.

3. 조사결과

1. 건강도시 사업의 대분류별 가중치의 경우 개인적 접근이 0.197, 사회·환경적 접근이 0.803으로 조사되어, 사회·환경적 접근이 건강도시 사업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2. 6개 중분류의 경우, 환경이 0.315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인프라(0.246), 생활양식(0.124), 평가 및 반영(0.114), 질병예방 및 재활(0.109), 생활터(0.092)의 순위로 분석되었다.

4. 결론 및 고찰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각 지자체의 사업 역량을 고려한 사업이 되기 위하여는 다양한 사업을 일시에 수행하기 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AHP와 같은 기법을 이용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은 자치단체의 사업 계획과 사업추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